

제 84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한일문화와 21 세기

정혜선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통문화를 통해 본 일본문화의 특징은 1)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적은 관심 2) 형식과 양식미 추구·탐미 3) 집단에 대한 충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고대는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 등이 있으며, 중세에는 12 세기부터 사무라이가 등장하여 700 여년간 지배계급으로 군림한다.

헤이안 시대에 일본적 문화가 탄생하였다. 9 세기말에 가나문자의 창제가 이루어졌다. 이 무렵, 와카와 겐지모노가타리가 유행한다. 여기에서의 특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고 할 수 있다.

와카는 사랑과 계절이 주요 주제이며, 엄청난 형식미를 가지고 있다. 형식을 편하게 느끼는 이미지를 준다. 계절도 그 자체를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일례로 여름향기의 일본에서의 성공은 이런 정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사랑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와카의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설국이라는 영화는 리얼리티의 환상이 주요 모티브로써 와카와 비슷하며, 죽음마저도 미화하는 성향을 보인다. 일본에는 한국의 효 사상과 대조되는 사무라이 사상이 있으며, 사무라이 사상의 이면에는 활복의 문화가 있어, 죽음 미화의 측면을 살필 수 있다.

일본의 미는 양식미와 형식미가 뚜렷하며, 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쓴다. 이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미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일례로 가부키의 여장 남자의 경우를 보아도, 여자역을 소화하기 위해,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일본의 경제도 1980 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형식미가 주류를 이루었다.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되는 상명하복의 문화와 원리나 정신보다는 기술을 중시하는 제조업의 발달로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다가 세계의 빠른 변화와 아울러, 1991 년부터 2004 년에 걸쳐 장기불황을 맞이하게 된다. IT 분야에서 한국에 역전당하는 등, 틀에 박힌 형식미가 매뉴얼도 없고 상명하복도 없는 정보산업사회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다.

21 세기는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모든 상품에 정신(스토리)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Q&A>

Q. 한국 문학의 일본에서의 활동 및 성공 가능성은?

A. 보편적 가치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과도기에 있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끌어내어 표현하고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Q. 일본의 형식미나 양식미는 그 자체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A. 물론 형식미 자체가 가치가 되기도 하지만, 일본은 집단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절대가치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부분이다.

Q. 한일 문학의 차이점이 최근에는 없지 않은가?

A. 점차 차이점이 사라지고는 있다.

Q. 일본의 문화는 “연인(코이비토)”와 “정부(아이징)”를 구별하는 언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륜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A. 일본문화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다.